

# HLMF 및 NCD 기법을 적용한 낙서구궁의 Algorithm에 관한 연구

한동수\* · 조성제\*\*

## A syudy of Algorithm using the method of HLMF and NCD on the 'Lak-seo nine palace'.

Doung-Soo Han\*, Sung-Je Cho\*\*

### 요 약

본 논문은 낙서구궁의 수리적 함수를 동반한 새로운 기법의 연구를 적용하여, 역학(易學) Digital Modeling 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낙서구궁의 새로운 공차기법과 진법의 연구가 요구되는데, 이것을 HLMF 및 NCD 기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낙서구궁도를 작성할 때, 手記에 의하지 않고, Digital방식으로 제작 함으로서, 현장에서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Key Words : a common difference, NCD, HLMF, algorithm, Lak-seo.

### ABSTRACT

This paper aim at producing a Digital Modeling of the science of divination using a study of a new method with a mathematical function on "Lak-seo nine palace". For that goal, we must study a new law of moving forward and a new common difference on 'Lak-seo nine place'. We call this "the method of HLMF and NCD". Therefore, When drawing up 'a plan of Lak-seo nine palace', we will provide convenience in the field, so we don't make it by handwrite, but will produce it by a digital mode.

### 1. 서 론

인류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현대과학 이론과 기술은 끊임없이 각종 학문에 침투하였고, 풍수문화이론에도 정면으로 이르게 되어, 현대 자연과학으로 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1] 사실은 고전적

의미의 낙서(洛書)는 河·洛을 신물시(神物時)하여, 수(數)의 오묘(奧妙)함을 나타내는 마방진(魔方陣)적 의미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즉 그 때의 수리는 지극히 상수적(象數的)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양면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두 영역 중에 한 가지 면만 부각시켜 설명하는 단면성(斷面性)이 강하였다. 이러한 역리적 수리도 근대에 이르러서

\*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 교신저자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수 (chosj715@yahoo.co.kr)

접수일자 : 2011년 04월 19일, 수정일자 : 2011년 05월 15일, 심사완료일자 : 2011년 05월 27일

는 시. 공을 합일시도 하며, 상대성 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추세가 강해졌다. 이는, 어떠한 물리 법칙도 그 법칙을 형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 실은, 하도를 체(體)를 삼고, 낙서를 용(用)으로 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진 현공구성학(玄空九星學)도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는 것이 과제이며, 그것은 거시적 내지 미시적인 두 영역을 포괄해야만 한다.[3]

20세기에 와서는 전자계산기의 응용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변화하는 발전을 가져와, 인공지능이 대량으로 응용되었고, 현대과학의 기술로 인해 시장경쟁이 가열 되었으며, 기술상품의 경신에 있어 신속이 요구되는데,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수학적 연구가 포함되는 현대과학이다.[4] 본 논문에서 주지하는 바는 역학의 복잡한 구조를 개념화하고, Algorithm화하는데 있는데, 그것의 기초가 수학의 발전 내지를 전산과학에 발전에 있음을 인지하고, 낙서의 이론을 함수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Digital화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된 낙서의 이론에서 수리적 내지 함수적인 요소를 추출해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낙서의 수리적면을 고찰, 분석하여, 단서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즉, 현대 과학에 있어 동양의 신비주의의 기본이 되는 사상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낙서가 고전적 의미의 수리에서 현대의 수리과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연구의 방향은, 호경국 교수[5]의 저서[6]에 수록되어 있는 현공풍수이론과 조인철의 박사 학위 논문[7]에 게재된, 현공 구성법 중에서 낙서 구궁의 운행의 법칙들만을 수리화 및 함수화하겠다.

연구의 목적은 이곳에서 도출된 수리를 바탕으로 함수화된 것들을 논리적 Algorithm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물리적 Algorithm을 개발하여, Data Modeling의 기초적 이론을 확립하고자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서구궁의 비행 진법(進法)을 분석하여야 한다. 중궁(中宮)과 각궁(各宮) 사이에 일정한 공차(a common difference)가 존재하는데, 기존에는 연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

차(a new common difference; NCD)라 명명(命名)하고, 이후로 부터는 이 기법을 NCD라 하였다.

또한 구성(九星)이 비행하면서 중궁과 각궁 사이에 공차로 인한, 일정한 수(數)를 갖는 합산(合算)된 값을 낙서의 진법수로 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낙서구궁의 본래의 수인 1~9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법인 knowledge algorithm이 요구된다. 이러한 낙서구궁적인 진법의 알고리즘도 기존에는 연구된 적이 없었기에 “한동수 式 진법”(The Han's law of moving forward ; HLMF)라 명명하고, 추후 본 논문에서 이 기법을 HLMF라 하였다.

현장에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핵심이 되는 2가지의 새로운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낙서구궁도를 작성할 때, 手記에 의하지 않고, 모바일 상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제작된 Digital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기법들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구궁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는 홍콩 쪽에서 개발된 것과 한국에서는 김교현[8]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PDA에서 구현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한 부분을 출력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시키는 방식이다. 즉 1운부터 9운까지의 24좌향별로 형성된 구궁도를 작성하고, 이 구궁도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만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화면에 출력시키는 방식이다. 운영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각運 중에 하나의 小運을 선택하고, 하나의 좌향을 선택하면 이 조합에 의하여, 몇 運에 무슨 坐向의 구궁도가 화면에 출력되고, 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이 미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순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구궁도를 활용하는 풍수 이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요구되는 사항만을 단순 출력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함수 및 알고리즘의 개발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소프트웨어의 용량의 대형화이다. 모든 필요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특성상 용량이 비대해지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거나 필요 사항을 더 확장시킬 수 없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더욱이 가장 극심한 문제는 여러 변인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가 조합되고 생성되어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하는 능력은 전무(全無)한 소프트웨어라는 점이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역학 이론의 개념이 구조화 및 수리화되고, 이것이 Digital Modeling이 되어서 변수에 따라 무한한 예측 가능의 數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이 바탕 위에서 미래예측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학 Solution을 개발하기 위한, 논리적 Algorithm과 물리적 Algorithm을 제안하여, 현장성과 실용성이 있는 Digital Modeling 개발의 기초적 이론을 확립함에 있다.

## II. 낙서의 수리적 이론의 분석

### 1. 낙서의 고전적 의미의 수리

하도와 낙서에 대한 역학의 근본 문제를 언급한 최초의 인물은 前漢의 공안국(B.C159 ~ B.C74)인데, 그는 복희가 하도를 본받아 작역(作易)하고 우(禹)가 낙서를 근거로 치수(治水)하였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9]

「하도는 복희씨가 천하에 왕노릇 할 때 용마가 황하에서 나오니 그 무늬를 본받아 팔괘(八卦)를 그린 것이며, 낙서는 하나라의 우(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 거북이가 등에다 무늬를 지고 나왔는데, 그 수가 아홉에 이르므로 이를 수적체계로 정리하여 아홉의 뜻을 완성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전한말의 유희에게 계승되고, 후한의 정현(127~200)에게 이어졌고, 그는 낙서의 수적(數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10]

정현은 그림 1과 같이 낙서대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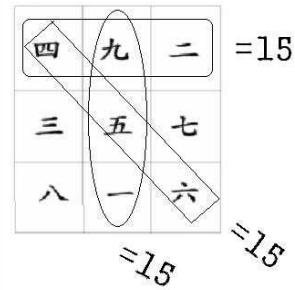


그림 1 낙서반(원단반)  
Fig. 1 A main plan of 'Lak-seo'

「구궁을 행하는 數를 크게 하나로 취(더)해보면, 사정사유(四正四維)의 각각의 합은 15이다. 즉, 양단의 두값을 더하면 합십이고, 중형으로 더하면 15가 된다. 즉 대각수인 건궁과 손궁의 합은 6+4=10이 되고, 중형으로 리궁과 中宮 및 감궁의 합은 9+5+1=15가 된다. 斜行으로 손궁과 중궁 및 건궁의 합은 4+5+6=15이다.[11]

한대의 구수설과 십수사상은 이후의 역학사에서 여러 가지의 분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오늘날 현존하는 도상으로서의 하도와 낙서가 완성된 것은 송대 주자에 이르러서였다.

주자는 하도십수설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낙서 구수설과 더불어 역도의 수적체계를 하도·낙서와 관련하여 정착시키게 된 것이다.[12]

「하도는 다섯 개의 생수로서 다섯 개의 성수를 거느리며 같은 方位에 거처하는 것이니, 대개 그 전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수의 본체를 말한 것이다. 낙서는 다섯 개의 홀수로서 네 가지 짝수를 거느리며 각각의 方位에 위치한 것이니, 대개 陽을 주로 하여 陰을 거느리는 것이며 이는 수가 작용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13]

이어 주자는 낙서를 수적(數的)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말하고 있다.

「낙서는 대개 거북이의 상을 취한 것이니, 그 수는 9구를 머리에 이고 1일을 아래에 밝고 있으며 왼쪽에 3, 오른쪽에는 7을,

그리고 2와 4는 양어깨에, 6육과 8은 두 다리 쪽에 배치한다.» [14]

이와 같이 하도와 낙서는 수적 개념으로 결부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경란은 낙서구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구성과 함께 구성의 비행도의 진법을 표시하였다. 이는 입체적인 도면이어서, 상수적면에서 볼 때, 한층 더 발전한 도해이다.

「구궁이란 즉, 2와 4는 어깨, 6과 8은 발, 좌3 우7이며, 9를 머리에 이고, 1을 밟고 있는 것이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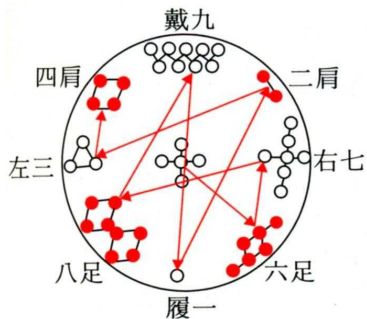


그림 2 구궁도  
Fig. 2 The plan of 'Lak-seo nine palace'

1) 낙서의 기본적 개념과 수리

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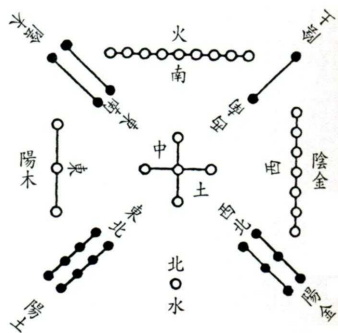


그림3 낙서 종합도  
Fig. 3 A general plan of 'Lak-seo nine palace'

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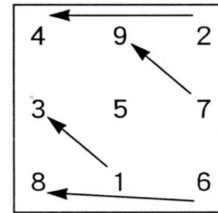


그림4 낙서의 간도  
Fig. 4 A simple plan of 'Lak-seo'

9는 머리에 이고, 1은 밟고, 좌에는 3, 우에는 7이고, 2와 4는 어깨에, 6과 8은 발이 되고, 5는 그 중앙에 있다.[16] 기수는 사정방과 중앙에 거하고, 우수는 네 모퉁이에 이른다. 기(奇)란 양이고, 우(偶)는 음이고, 양수가 음수를 통솔한다.[17] 또한 하도는 체이고, 낙서는 용이다. 하도는 날줄이고, 낙서는 씨줄이 된다.[18] 앞의 구결 [19]들은 시각적이고 공간적이며 입체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현대적 의미의 낙서 구결들이다. 간도는 중앙의 5를 빼 나머지 숫자가 기수와 우수로 나누어져 2의 공차를 두고 횡, 사의 방향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 그림3, 4는 종무기 편저, 『각과양택정화』 상권, 진원서국, pp.65, 2006년에서 인용한 것이다.

2) 낙서구궁의 유사 공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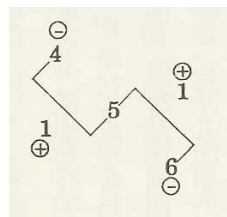


그림5 1 공차  
Fig. 5 A common difference o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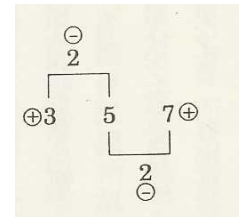


그림6 2 공차  
Fig. 6 A common difference of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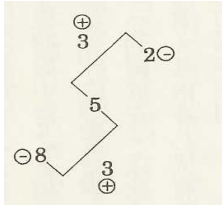


그림7 3 공차  
Fig. 7 A common difference of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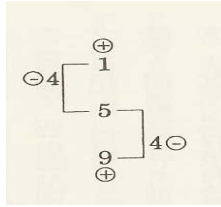


그림8 4 공차  
Fig. 8 A common difference of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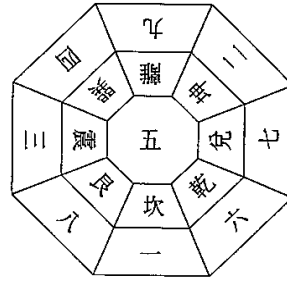


그림9 자백구성원단반  
Fig. 9 A plan of 'Lak-seo nine colors star'

상기 도면들은 종무기, 편저, 앞의 책 68쪽에 실린 낙서 구궁도에서의 중궁의 수 5를 기준으로 하여, 중황간과 사우(四隅)간의 극간(極間 - a gap)을 구한 경우들이다. 뒷부분의 낙서구궁의 공차[NCD]에서 자세히 언급 하였다.

2. 구성운동과 궤적(軌跡)의 관한 관련 연구

1) 구성운동과 궤적의 개념

(1) 낙서구궁도와 자백구성(紫白九星)

낙서(洛書)에서 나타나는 수(數)와 팔괘(八卦)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궁(九宮)이 통일되어 이루어진 도(圖)를 낙서구궁도라 부른다. 이 도를 운용할 때, 통상 각 궁의 궤상(卦象)은 그리지 않고, 다만 진·손·리·곤·태·건·감·간 8개를 사용하여 방위의 별 및 각 별이 예측된 수를 표시하여 하나의 간단한 그림을 만든다.[20]

이 도형은 모양이 원반과 비슷하여, "팔괘원단반(八卦元旦盤)"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大地의 동, 남, 서, 북, 중, 동북, 동남, 서북, 서남 9개 방위의 원개 상황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팔괘원단반을 "지반(地盤)"이라 부르고 지반에 있는 각 숫자는 9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별을 나타낸 것으로 "자백구성(紫白九星)"이라 칭한다.

표1 낙서구궁도  
Table 1 A plan of 'Lak-seo nine palace'

4	9	2
3	5	7
8	1	6

2)낙서의 궤적 형성

현공풍수에서는 낙서의 구궁의 숫자를 고정시키지 않고, 운에 따라 구궁의 숫자가 변화됨에 따라 음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매 20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1운부터 9운까지의 180년간을 말한다. 현재는 8운으로서 2004년부터 2023년 까지 20년을 말하는 것이다. 낙서의 궤적이 형성되는 과정은 조인철 박사의 논문 [21]을 인용하였다.

낙서의 궤적 형성은 해당 운수(運數)를 입증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각궁의 숫자를 순서대로 순행(順行)을 시키면, 중궁의 숫자가 원단반(元旦盤)에서 '5'이었던 것이 해당 운수(該當運數)로 바뀌게 되면서 구궁도안에 있던 모든 숫자 (1에서 9까지)가 영향을 받아 자리가동을 하게 된다.

“자백구성은 결코 정적(靜的)이 아니라 동적(動的)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궤적을 비행한다.”[22] “구성의 비행은 중심에서 시작하는데 중심의 數는5이니 바로 5에

서 비행을 시작한다. 5가 6위(건궁)로 들어가고, 6은 또 7위(태궁)로 들어가고, 7은 8위(간궁)로 들어가고, 8은 9위(리궁)로 들어가고, 9는 1위(감궁)로 들어가고, 1은 2위(곤궁)로 들어가고, 2는 3위(진궁)로 들어가고, 3은 4위(손궁)로 들어가고, 4는 중위(중궁)로 들어가 하나의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그 궤적은 5⇒6⇒7⇒8⇒9⇒1⇒2⇒3⇒4⇒入中 순으로, 이 비행과정을 순비(順飛)라 부른다.”[23] 순비와 상반되는 역비(逆飛)는 순항과 반대로 중궁에서 시작하여 손-진-곤-감-리-간-태-건으로 이동한다.

### III. 낙서구궁의 진법과 공차에 관한 연구

#### 1. 낙서구궁의 進法(진법)

##### 1) 구성의 비행과 순비, 역비

낙서구궁의 진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낙서구궁이 양천적이 규정한 궤적에 따라 형성된 구도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청량경(靑囊經)·상권』에서 이르길 “5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방을 통제하는데, 1은 북쪽이고, 9는 남쪽이고, 3, 7은 옆에 위치하고, 2·8·4·6은 중횡으로 규율한다.”[24]

또한 낙서원단반은 낙서가결에서처럼 5가 그 가운데하고, 9를 머리에 이고 1은 밟고, 왼쪽에는 3이요 오른쪽에는 7이고, 2 4는 어깨가 되고, 6과 8은 발 뿌리가 된다. 기수는 4정방과 중앙에 거하고, 우수는 네 모퉁이에 이르렀다.[25]

##### ▶순비(行)와 진법(비행)

표2 5운 순행도

Table 2 A direct motion of fifth star

4	9	2
3	5	7
8	1	6

표3 9운 순행도

Table 3 A direct motion of ninth star

8	4	6
7	9	2
3	5	1

상기표 2, 3과 같이 5운일 때, 구성의 비행은 중심에서 시작하는데 중심의 수는 5이니 바로 5에서 비행을 시작한다. 5가 6위(건궁)로 들어가고, 6은 또 7위(태궁)로 들어가고, 7은 8위(간궁)로 들어가고, 8은 9위(리궁)로 들어가고, 9는 1위(감궁)로 들어가고, 1은 2위(곤궁)로 들어가고, 2는 3위(진궁)로 들어가고, 3은 4위(손궁)로 들어가고, 4는 중위(中宮)로 들어가 하나의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그 궤적은 5⇒6⇒7⇒8⇒9⇒1⇒2⇒3⇒4⇒입중 순으로 비행했고 오름차순으로 순비했다.

9운시도 역시 5운시에 비행한 궤적을 따라 9운이 중궁에서 시작하여, 9⇒1⇒2⇒3⇒4⇒5⇒6⇒7⇒8⇒입중 순으로 비행했고 오름차순으로 순비했다.

##### ▶역비(行)와 진법(비행)

표4 5운 역행도

Table 4 A retrograde motion of fifth star

6	1	8
7	5	3
2	9	4

표5 9운 역행도

Table 5 A retrograde motion of ninth star

1	5	3
2	9	7
6	4	8

상기표 4, 5와 같이 5운일 때, 구성의 역비행도 중심에서 시작하는데 중심의 數는 5이니 바로 5에서 비행을 시작한다. 5가 4위(건궁)로 들어가고, 4는 또 3위(태궁)로 들어가고, 3은 2위(간궁)로 들어가고, 2는 1위(리궁)로 들어가고, 1은 9위(감궁)로 들어가고, 9는 8위(곤궁)로 들어가고, 8은 7위(진궁)로 들어가고, 7은 6위(손궁)로 들어가고, 6은 중위(중궁)로 들어가 하나의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그 궤적은 5⇒4⇒3⇒2⇒1⇒9⇒8⇒7⇒6⇒입중 순으로 비행했고 내림차순으로 역비했다.

9운시도 역시 5운시에 비행한 궤적을 따라 9운이 중궁에서 시작하여, 9⇒8⇒7⇒6⇒5⇒4⇒3⇒2⇒1⇒입중 순으로 비행했고, 내림차순으로 역비했다.

##### 2) HLMF(The Han's law of moving forward)

여기서 진법(進法)이라 함은 궤적에 따라 비행하는 法도 진법이고, 진법에 따라 순행과 역행하면서 발생하는 수리적 관계도 진법이라 하겠는데, 여기서는 수리적 관계의 진법을 분석해 본다. 10진법은 0에서 9까지 진행하면 그 다음이 10이 된다. 낙서구공의 진법은 1에서 8까지 진행하면 9가 되고, 더 진행하면 다시 1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10진법은 10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면은 11이 되고, 또 나아가면 12가 되지만, 낙서구공에 있어서는 9에서 한번 나아가면 1이 되고, 또 나아가면은 2가 된다. 앞 서에서 낙서구공의 비행에 있어서 순비와 역비에서 순행인 경우는  $1 \Rightarrow 2 \Rightarrow 3 \Rightarrow 4 \Rightarrow 5 \Rightarrow 6 \Rightarrow 7 \Rightarrow 8 \Rightarrow 9 \Rightarrow$ 入中(1)이 되고, 역행인 경우는 반대로  $1 \Rightarrow 9 \Rightarrow 8 \Rightarrow 7 \Rightarrow 6 \Rightarrow 5 \Rightarrow 4 \Rightarrow 3 \Rightarrow 2 \Rightarrow$ 入中(1)이 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즉 낙서 구공에서는 9가 만수(꼭 찬수)로서 “0”을 의미한다.

9에서 한보도 가지 않으면  $9 + 0$ 이고, 9에서 한보를 가면은  $9 + 1$ 이 되고, 9에서 이보를 더 가면  $9 + 2$ 가 되는 데, “ $9 + 0$ ”은 10진법의 계산으로는 9가 되고, “ $9 + 1$ ”은 10이 되며, “ $9 + 2$ ”는 11이 된다. 그런데 낙서구공에서는 “ $9 + 0$ ”은 제자리=[“0”], “ $9 + 1$ ”은 入中하여 [“1”]에 자리에 있게 되고, “ $9 + 2$ ” “1”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자리로 나아간다. 즉 낙서구공의 진법은 “ $9 + 0$ ”  $\Rightarrow$  [“0”], “ $9 + 1$ ”  $\Rightarrow$  [“1”], “ $9 + 2$ ”  $\Rightarrow$  [“2”]로 각각 [“0”], [“1”], [“2”]되며, 여기서 앞의 각 더하기 항의 앞에 있는 “9”라는 수를 “0”의 수로 치환한 결과와 같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일정한 관계가 성립된다. 낙서구공의 진법수는 십진법수로 합산한 값의 첫 자리와 둘째 자리 수를 합한 값이다. 이러한 함수 관계(functional relation)를 HLMF 기법이라 한다.

예를 들자면, 5운에서 8운을 더가면 10진법수로는 13인데 9진법으로는 4가 나온다. 왜냐하면 13이란 수는 9까지 나아간 다음 그 나머지 숫자가 4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수식으로는  $13 - 9 = 4$ 로서 등식 관계가 성립된다. 다른 방식으로는 13의 첫 자리 인 1과 두 번째 자리인 3을 더했을 경우도 4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Digital 방식으로 치환한 경우 논리적인 Algorithm의 기본적 바탕이 된다.

## 2. 낙서구공의 공차(a common difference)

### 1) 구공의 새로운 공차[NCD(a new common difference)] 개념

앞서 그림5의 1공차를 낙서구공의 공차로 중공수 5를 중심으로 표시하면, 상방향  $\ominus 4$  쪽은 마이너스 1(-1)이 되고, 하방향  $6 \oplus$  쪽은 플러스 1(+1)이 된다. 이는 해당 공의 수에서 중공수를 빼 값이 된다. 여기서 “ $\oplus$ ”표시는 홀수를 말하고, “ $\ominus$ ”표시는 짝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와 (-)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6의 2공차는 좌측  $\oplus 3$ 은  $3 - 5 \Rightarrow -2$ 로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이고, 우측  $7 \oplus$  쪽은  $7 - 5 \Rightarrow +2$ 가 되어 공차가 플러스 2가 된다.

그림7의 3공차는 상방향  $2 \ominus$ 는 플러스 6(+6)이 공차이다. 이는 9입중도를 보면  $6 - 9 - 3$ 으로 되어있는데, 9는 0으로 치환할 수 있으므로 상방향은 +6이 공차가 된다. 또한 끈공의 2는 HLMF 기법으로 표시하면 11이 되어서 5입중도인 경우에 계산법은  $11 - 5 \Rightarrow +6$ 이 된다. 하방향  $\ominus 8$  쪽은  $8 - 5 \Rightarrow +3$ 이 되어 공차가 플러스 3이 된다.

그림8 4공차는 상측  $\oplus 1$  쪽은 공차가 플러스 4가 되고, 하측  $9 \oplus$  쪽은 공차가 플러스 5가 된다. 상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하기 표6 공차(순비)의 경우로 정리된다.

하기 표6 공차(순비)에서 -1이 (8)로도 치환되는 것은 -1이라는 숫자는 만수 9인 숫자에서 기준해보면, 뒤 쪽(마이너스 쪽)으로 한 걸음 갔다는 것이어서, 결국은 -1의 값은 8로 치환되고, 알고리즘에서의 코딩은 플러스 값인 8로 사용해야만 된다. -2가 7이 되는 경우도 상기의 경우와 같다. 또한 역비에서도 하기의 표7 공차(역비)와 같은 경우로 설명된다. 즉 순비의 대칭 방향으로 숫자들이 자리를 잡는다.

표6 공차(순비)  
Table 6 A common difference(direct motion)

-1(8)	+4	+6
-2(7)	中宮	+2
+3	+5	+1

표7 공차(역비)  
Table 7 A common difference(retrograde motion)

+1	+5	+3
+2	中宮	-2(7)
+6	+4	-1(8)

#### IV. 낙서구궁의 수리에 따른 함수 및 Algorithm에 관한 연구

##### 1. HLMF 및 NCD 기법을 적용한 Modeling

###### 1) 중궁과 각궁간의 수리적 관계

앞서 논술한 표6과 같이 낙서구궁에 있어 입중수가 9일 때 각궁에 존재하는 숫자가 공차라고 한 바 있다.

표8 공차도(순비)  
Table 8 The map of a common difference (direct motion)

巽(Sun)	離(Lee)	坤(K'un)
-1(8)	+4	+6
震(Zh'en)	中宮	兌(Tae)
-2(7)	<b>[M]</b>	+2
艮(Khan)	坎(Gham)	乾(Ch'en)
+3	+5	+1

이것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중궁을 [M]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Sun=[M]+8(-1), Ch'en=[M]+1 ... 1공차  
Zh'en=[M]+7(-2), Tae=[M]+2 ... 2공차  
Khan=[M]+3, K'un=[M]+6 ... 3, 6공차  
Lee=[M]+4, Gham=[M]+5 ... 4, 5공차

###### 2) 계산의 실제

표9 공차도(순비)  
Table 9 The map of a common difference (direct motion)

巽(Sun)	離(Lee)	坤(K'un)
8+(8) (16)→7	8+4 (12)→3	8+6 (14)→5
震(Zh'en)	中宮	兌(Tae)
8+(7) (15)→6	[M] 8	8+2 (10)→1
艮(Khan)	坎(Gham)	乾(Ch'en)
8+3 (11)→2	8+5 (13)→4	8+1 (9)→9

상기 표9에서 중궁 [M]을 8이라한다. 여기서 화살표("→") 뒤에 오는 숫자는 HLMF 기법로 치환한 값이다.

Sun: [8]+(8)=16→7, Ch'en : [8] + 1 =9  
Zh'en: [8]+(7)=15→6, Tae: [8]+2=10→1  
Khan: [8]+3=11→2, K'un: [8]+6=14→5  
Lee: [8]+4=12→3, Gham: [8]+5=13→4

###### 3) Programing을 위한 개념도

표10 각궁과 공차  
Table 10 A each other's palaces & a common difference

A1	B1	C1
<b>(8)</b>	<b>4</b>	<b>6</b>
A2	中宮	C2
<b>(7)</b>	<b>B2=[8]</b>	<b>2</b>
A3	B3	C3
<b>3</b>	<b>5</b>	<b>1</b>



표11 낙서구궁의 실제 비행 값  
Table 11 A real value of flying on 'Lak-seo nine palace'

<b>Score1 D1→ 7</b>	<b>Score2 E1→ 3</b>	<b>Score3 F1→ 5</b>
<b>Score4 D2→ 6</b>	<b>E2=[M] E2→ [8]</b>	<b>Score5 F2→ 1</b>
<b>Score6 D3→ 2</b>	<b>Score7 E3→ 4</b>	<b>Score8 F3→ 9</b>

4) Programing을 위한 論理的 Algorithm 設計

각궁에 해당되는 공차값을 spreadsheet상의 cell의 주소값과 관련지어 입력하여, 공차라는 Data를 value化한다. 예를 들면, “8”공차의 값이 필요할 경우는 “A1”의 cell을 Range(“A1”).Value로 Coding 하면 실제적으로는 “8”이라는 數의 Value를 갖게 된다. <표10>은 cell의 주소 값으로 공차를 참조하기 위해 설계된 도면이다.

중궁의 入宮 數에 따라 공차를 적용하면서 비행한 다음, 각궁이 갖는 값을 Score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이때에 그 값을 나타내는 cell의 주소를 지정한 설계도가 <표11>이다. 중궁에 8을 입증시켜, simulation을 하면 “→”표의 뒤에 나오는 숫자가 실제로 구하고자하는 각궁의 값이 된다.

아래의 Programing에서 X는 공차로서 NCD의 기법을 적용한 것이고, Range(“E2”).Value는 각 入中運數를 입력해야하는 spreadsheet상의 cell의 주소 즉, 中宮 값이다. 중궁의 값에다 공차 값인 X를 더해서 나온 값에다가 10배를 하였고, 여기서 그 합산된 값의 왼쪽으로부터 첫째 자리 數를 취하기 위해서 Left함수를 사용하여 얻은 값(Value)이 A이고, 그 두 번째의 값을 취하기 위해서 Mid함수를 사용하여 얻은 값이 B이다.

5) 「Excel」 Macro에서의 Programing

Sub 중앙운수()

' 중앙운수 Macro

' 한동수이(가) 2011-03-07에 기록한 매크로  
,

```
X = Range("A1").Value           Rem "8"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1 = (A * 1) + (B * 1)
Range("D1").Value = Score1
```

```
X = Range("B1").Value           Rem "4"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2 = (A * 1) + (B * 1)
Range("E1").Value = Score2
```

```
X = Range("C1").Value           Rem "6"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3 = (A * 1) + (B * 1)
Range("F1").Value = Score3
```

```
X = Range("A2").Value           Rem "7"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4 = (A * 1) + (B * 1)
Range("D2").Value = Score4
```

```
X = Range("C2").Value           Rem "2"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5 = (A * 1) + (B * 1)
Range("F2").Value = Score5
```

```
X = Range("A3").Value           Rem "3"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6 = (A * 1) + (B * 1)
Range("D3").Value = Score6
```

```
X = Range("B3").Value           Rem "5"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7 = (A * 1) + (B * 1)
Range("E3").Value = Score7
```

```
X = Range("C3").Value           Rem "1"
A = Left((Range("E2").Value + X) * 10, 1)
B = Mid((Range("E2").Value + X) * 10, 2, 1)
Score8 = (A * 1) + (B * 1)
```

Range("F3").Value = Score8

End Sub

## V. 결 론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낙서 구공의 비행 궤적과 수리를 분석하여, 현장에서 낙서구공도를 작성할 때, 전반을 비행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간략하게 만들어 간편성과 용이성을 확보함에 있다. 둘째, 앞에서의 새로운 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풍수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적 알고리즘의 단서를 확보하고자 함인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첫째의 사항보다, 둘째 사항에 있다. 지금까지 역학하면 신귀(神鬼)등을 포괄하는 신비주의적 요소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 층의 역학 수요자를 창출해 온 것이 아닐까 유추 해본다. 이러한 경향도 과학이 발달해가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역리 현상을 결코 신귀(神鬼)가 아니고 인격화된 하나님도 아니며 초자연적인 역량도 아닌 규칙적인 자연의 기장(氣場)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자연의 기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리 등이 과학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론의 근거를 만들고, 역리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 법칙 등을 규명하고 개념화, 구조화한 다음, 디지털화 할 때, 더욱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역리 현상을 구조화하고 전산화하는 과업이 현재에 있어서는 역학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지는 몰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역학인들은 역리 현상을 인문, 사회, 자연 과학적 관점으로 두루 조명해보는 학문적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역리 행위로 자연 현상을 감여하든지, 인간의 명운(命運)을 감정하든지 간에 감여 및 감정한 결과를 단순한 글과 말로서 전달하는 정도의 역학 서비스는 지양되어야 할 점이다. 쉽게 다시 말하면 명리, 풍수, 작명, 관상 등으로 감여 및 감정을 하여 상담을 할 때는 종합적인 분석 감정 예측서, 즉 결론을 작성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역학 서비스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록(結錄) 작성은 역리적 학설 및 원리 등을 근거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합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만이 고객의 급부(給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합 보고서 형식의 결론을 작성할 때, 복잡하고 난해한 역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추길피홍(誣吉避凶)적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많은 분량의 작업을 Software적으로 쉽게 해결해주는 즉, 역학 Digital Solution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林健強, 『현공풍수 과학 검증』 - 개편, 취현 관문화유한공사, p.13, 2002.
- [2] Fritjof Capra, 김용정·이성범 옮김,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p.215, 2006.
- [3] 林健強, 앞의 책
- [4] 李樹菁 유저 상평관 정리, 『주역상수통론』 p.178, 2004.
- [5] 胡京局, 號 夢山居士, 1939년 출생, 1962년 화남사범대학 졸업, 심천대학에서 재직후 정년퇴임, 『세계인물사전』, 『세계문화명인사전』, 『중국전문가 대사전』 등 20여종의 辭書속에 수록, 세계문화명인 成就獎 영예증서 수여
- [6] 胡京國, 『고역현공학신태』, 광동화성출판, 1998.
- [7] 趙仁哲,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의 관한 연구 -건축계획론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6.
- [8] 「부자되는 현공풍수 이야기」 著者로서 프로그램개발업자에 의해 개발한 것이라함.
- [9] 송재국(청주대), 『周易의 ‘河圖·洛書’에 대한 철학적 이해』, 새 한철학회 논문집, 2002 哲學論叢 제29집(2002. 7), p.356
- [10] 역학계몽 본도서제일. -재인용
- [11] 胡肇台, 『양택풍수지남』, 서성서국, 2008, p.99 - 東漢學者鄭玄《易緯. 乾鑿度》中記載:
- [12] 송재국(청주대), 앞의 논문, p.357
- [13] 역학계몽.本圖書第一. -재인용
- [14] 역학계몽, 앞의 책. ➡“洛書蓋取龜象 故其數 戴九 履一 左三 右七 二四爲肩 六八足”

[15] 胡肇台, 앞의 책, p.99, 2008, ➡北周甄鸞 《數術記遺九宮算》 注釋: 「九宮者, 卽二四爲肩, 六八爲足, 左三右七, 戴九履一, 五居中央。」 (口訣)

[16] 戴九履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五在其中。

[17] 奇數居四正和中央, 偶數到四隅, 奇爲陽, 偶爲陰, 陽數統領陰數。

[18] 河圖爲體, 洛書爲用。河圖爲經, 洛書爲緯。

[19] 鍾茂基 편저, 『각과양택정화』 상권, 진원서국, p.65, 2006.

[20] 胡京國, 앞의 책, p.16, 1998 (그림9 포함)

[21] 趙仁哲, 앞의 박사학위 논문, 2006. 6.

[22] 胡京國, 앞의 책, p.19, 1998.

[23] 胡京國, 앞의 책, p.19, 1998.

[24] 「中五立極, 臨制四方, 背一面九, 三七居旁, 二 八四六, 縱橫紀綱」 - 『청낭경·상권』

[25] 五在其中, 載九履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偶數到四隅 - 洛書歌訣

---

저자약력

---

**한 동 수(Doung-soo Han)                      학생회원**



1973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11년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컴퓨터공학, 역학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1987년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석사

2002년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사

2006년- 현재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전략학전공  
부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컴퓨팅